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 고향 떠나는 한 부부의 애틋함 나타내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 이태준 作 '촌뜨기'

이태준의 '촌뜨기'는 단편 소설이며 농민 소설입니다. 1934년 3월 <농민순보>에 발표된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 시골 산마을에 사는 '장군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며 공간적 배경은 안악골, 화전민 마을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수탈은 극에 달하여, 대부분의 논밭은 물론 산까지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 지주들은 몰락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소작농을 하던 사람들 마저도 땅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장군이는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짐승을 잡고 숯을 구워 생계를 꾸려가던 순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삶의 터전이라 할 산을 잃고, 게다가 생계 수단이던 모든 일(화전, 숯, 사냥 등)을 못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물방앗간을 차리지만 그것도 발동기가 들어옴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지요. 게다가 빚까지 지게 되지요. 즉, 일제의 수탈과 문명의 발전으로 장군이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도 명예퇴직 · 정리해고 · 부도 등으로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정황을 소재로 삼은 소설도 나오고 있지요. '생계의 상실'이란 상황에서 '인간'을 그려보는 겁니다.

장군이라는 인물은 안악골, 화전 마을의 젊은이로 현실에 불만이 많은 불끈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나 아내는 얼굴이 못생긴 순종형의 여인이지요. 강원도 사투리의 특징과 순박한 농민의 모습이 잘 나타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에요.

장군이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안악골 꼭대기에 있는 오막살이에서 잘 생기지도 않은 아내와

**단편 소설이며 농민 소설**
**삶의 터전 잃게 되는 경우**
**현실과 연결 지어 보세요**

단 둘이 화전을 일구며 숯을 굽고 산짐승을 잡아 연명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 주인이 삼정회사로 바뀌면서 화전은 물론 사냥이나 숯을 굽는 등 지금까지 생계 수단이 되었던 모든 일을 못하게 된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빚을 얻어 물방앗간을 개설하려 했으나 다 완성하기도 전에 마을에 발동기가 들어와 그 일도 실패하고 빚만 지게 된다. 그런 장군이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친다. 사냥을 나온 순사부장이 바로 장군이가 짐승을 잡으려고 파 놓은 구덩이에 빠져 다치게 된 것. 이 일로 장군이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뺨이나 몇 대 맞으려니 했던 것이 2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히게 되지요.

장군이는 유치장에서 나가면 마을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아내는 당분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은 도시로 나가 돈을 벌어 농사지을 밑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장에서 나온 이틀 뒤, 장군이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난 후, 아내는 친정으로 향하고 장군이는 읍내로 향한다. 그러나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워 다시 아내를 부른 장군이는 아내를 읍내로 데려가 떡을 사 먹인 후 헤어진다. 이 대목에서, 비록 못생기고 밉기만 한 아내이지만 그녀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정이 잘 묘사되고 있다.

이태준은 서정적 소설을 많이 쓴 작가로 알려져 있지요. 게다가 흔히 상고주의라 일컫는 과거로의 회귀, 혹은 옛 것에 대한 미련을 잘 그려낸 작가이지요.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가난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여 미래를 꿈꾸는 한 농민의 모습을 그려 내면서 그 안에 따뜻한 부부의 정까지 담고 있지요.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한 부부의 애틋한 정을 나타내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농현상으로 빈집이 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요즘의 고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요즘 우리 현실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세요. 빈곤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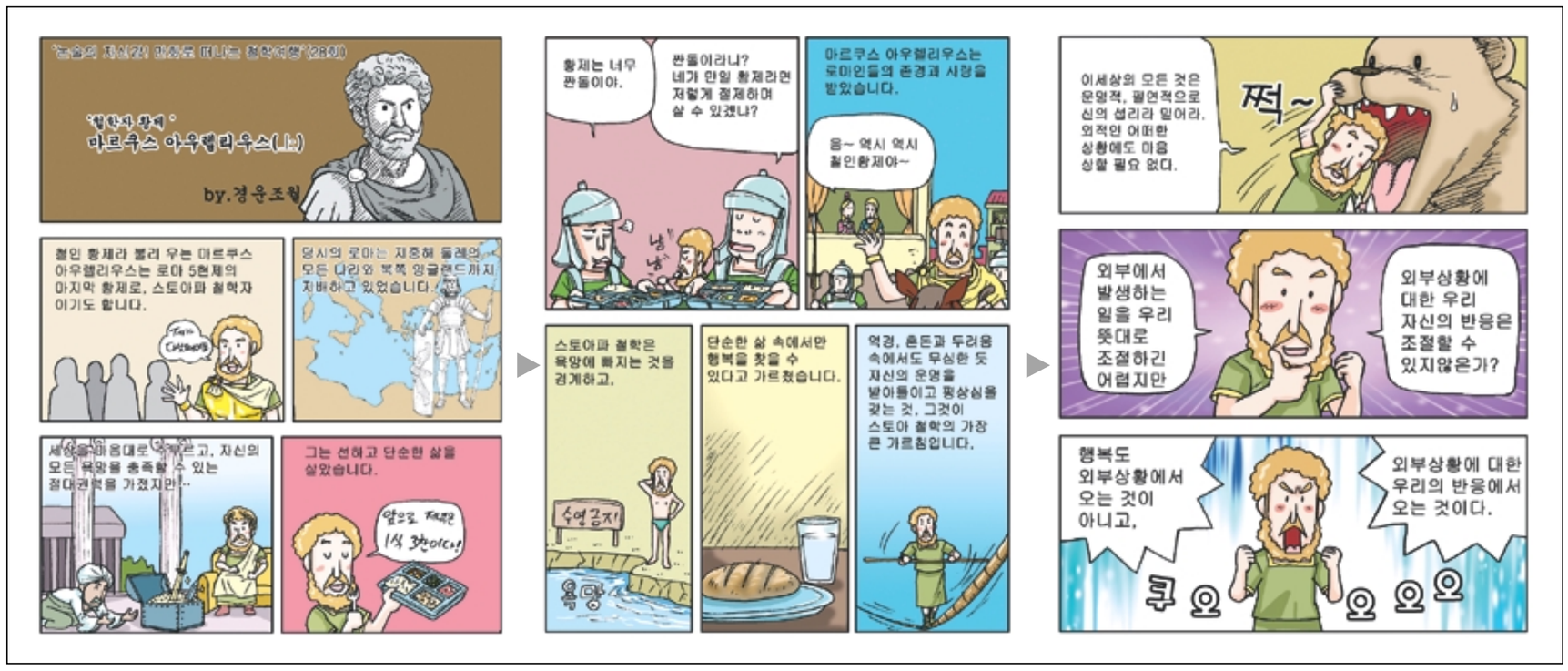
뜨거운 여름을 견뎌야 가을이면 밤나무든 상수리나무든 아람을 선물하겠지요. 여러분도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힘든 것 잘 견뎌내고 있겠죠?

**칠칠하다:** 세 가지의 뜻이 있으니 잘 구별하세요. 1)나무, 풀, 머리털 따위가 잘 자라서 알차고 길다. (나는 아직 열여섯이라 마님에게 귀염을 받는 것이 다만 좋았고 칠칠한 나물을 뜯어 드리고자 한사코 이 험한 산속으로 기어올랐다.)<김유정, 산골> 2)주로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인다.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부월이는 아직도 칠칠치 못한 속옷 차림인 채 방 안의 아랫목과 윗목 사이를 연락부절로 서성거리면서…)<윤흥길, 완장> 3)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인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그 댁이 큰댁의 기둥인데 장가를 열 번 들면 그만큼 칠칠하고 일새 빠른 사람을 구경이나 할 줄 아오?) <심훈, 영원의 미소>

**아람:**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 (흔들지도 않는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황순원, 학> 비슷한 말로 '알밤'이 있어요.

**물마루:**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것처럼 멀리 보이는 수평선의 두두룩한 부분. (창룡호는 멀리 거친 파도로 울퉁불퉁한 물마루를 넘느라고 몹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화를 잘내요. 어떻게 하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기엔 누구나 화가 잘 난다고 하지만 저는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아무렇게나 그러진 않지만 속에 눌러 담고만 있으니 병이 날 것 같아요. (ID:midsarang)

###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마음도 너그러워져요

부처님 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화가 날 때 바로 터뜨리지 말고, 자비심으로 화를 감싸 안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니지요. 지금 막 내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오르는데, 이를 어떻게 터뜨리지 않고, 속으로 꾹꾹 눌러놓지 않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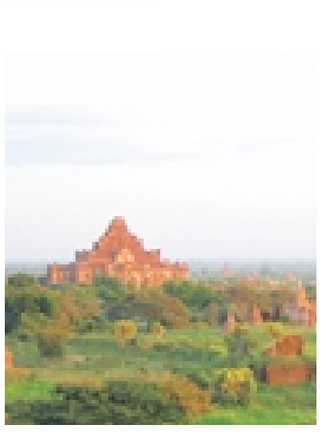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마음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지요. 가난해도 자기 힘껏 보시를 베푸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부자면서도 인색해서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 쓰는 것으로 바꿔봅시다. 내 마음에 자비로움이 넘친다면 웬만큼 센 분노가 일어나려고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비와 여유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메말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메마른 마음에 자비라는 감로수를 적실 수 있을까? 이것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함께 갑니다. 몸을 편안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에 따라 마음도 너그럽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실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틱낫한 스님의 <화>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세요.

(서울 옥천암 중고등부 지도법사 운산 스님)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적극추천하는
미안마 성지순례



■ 미얀마의 종정 큰스님 친견 ■
부처님의 위신영이가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짜익티오에서의 대법회 봉행
예스굿투어가 최초로 개척한 성지!!!!!!!
◇ 짜이티사웅 파고다 방문 및 우 삔냐디바 큰스님 친견
(짜익티오:병마퇴치,병고액난소멸로 환희심이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

9.14 / 10.12 2회출발!
양곤-바간-헤호-짜익티오 7일

₩1,540,000원
(포함: 탁발공양행사, 특급호텔,성지순례 입장료,인천공항세,출국세,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미얀마비자발급비, 미얀마 공항세, 미얀마샤브샤브)

* 예스굿투어는 수익의 10%를 미얀마의 한국기술종합대학교 운영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예스 굿 투어
tel: 02-365-7747 fax: 02-365-2994